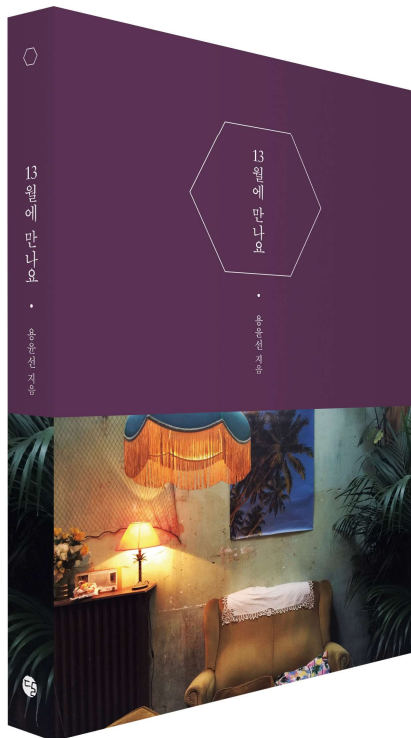


달 출판사 신간 안내문

(문의) 편 집 031-955-2666

마케팅 031-955-2688



『울기 좋은 방』

용운선의 두번째 책

## 13월에 만나요

용운선

ISBN 979-11-5816-035-7 03810

145 \* 200mm | 무선 | 300쪽 | 14,800원

2016년 9월 19일 출간

『울기 좋은 방』은 용운선 작가가 펴낸 첫번째 책으로, 항상 커피를 곁에 두고 사람을 가까이하며 살아온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13월에 만나요』는 유연하면서도 날카로운 특유의 시선으로 날것 그대로의 인생이 품고 있는 희로애락 그 자체를 들여다본다.

## 또 와야죠,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 하나의 장소에 겹쳐지고 포개지는 하나의 이야기

13월에 만나자는 약속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13월에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달력에 동그라미는 그려놓을 수 없어도 그저 내 마음속에서는 그때쯤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는가. 당신과 나이기에 가능한 약속, 그렇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도 전혀 낯설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는 빼곡하다.

커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작가 용운선. 2014년 산문집 『울기 좋은 방』이 출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새 책을 기다려왔다. 이번에 출간하는 『13월에 만나요』는 커피와 사람에 중심을 두었던 『울기 좋은 방』에서 좀더 넓게 확대된 느낌이다. 커피와 사람은 고스란히 존재하면서도 그 위로 여러 장소가 겹치고 포개져 더욱 진한 여운을 만들어낸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연희동’ ‘용산’ ‘영등포’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서울의 동네 이름부터 ‘협재’ ‘광교’ ‘진주’ ‘마산’처럼 대한민국 곳곳의 지명까지, 또 더러는 ‘텐진’ ‘씨엠립’ ‘낭트’ 등 먼 나라의 어느 곳까지 가 닿는다. 그러다 심지어 ‘강의 오른쪽 기슭’ ‘서울 북쪽 끝’처럼 특정 지역이 아닌 모호한 곳으로 뻗어나가더니, 급기야 ‘당신’ 혹은 ‘옆’으로 지칭되는 사람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공간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는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며 처연하게 아름답다.

그러다보니, 작가 스스로가 자신을 좀더 드러냈다고 보면 좋을까. 만나지 않고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듯 훤히 그려진다. 아주 사소한 순간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그녀에게 삶은 그 자체로 모두 이야깃거리가 된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작가의 일상을 며칠간 함께 동행한 것 같기도 하고, 어스름이 내려앉은 어느 날 밤, 술잔 하나를 마주하고 앉아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듯도 하다. 책 속에는 오래된 친구도 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커피를 배우러 오는 수강생도 있고,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가족도 있다.

뿐만 아니라, 허구인 듯 아닌 듯 오묘한 분위기를 일으키는 상상 속의 이야기까지. 이 책은 그렇게 커피 향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간다. 작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들 틈 속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생의 무게감이 자리하고 있다. 읽다보면 자연스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무엇이 좀더 옳은지를, 어느 쪽이 좀더 올바른지를 생각하게 한다. 삶의 진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득,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 ★ 책 속에서

집은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고, 그 영혼이 머무는 곳이므로 특별하다. 어떤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기운이 어깨를 감싸고, 어떤 집에 들어서면 답답하고 탁하다. 집이 사람을 닮는 것일 수도 있겠고 사람이 집을 닮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집과 사람은 부부 같다. 헤어지기 어려운 암묵적 관계 말이다.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성질의 물체 같은 것 말이다.

— ‘그 집 앞에서 오래’ (38쪽)

함께 있어보면 그 사람 안의 나의 무게를 가늠하게 될 때가 있는데 여행이 그렇다. 여행이 동거와 다른 점은 집중력에 있다. 집중력이 생활에서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일은 지루해지고 어려워진다.

— ‘기다려야 하니’ (70쪽)

싫든 좋든 사람의 말을 담아 집으로 돌아가 하루이틀을 함께 살았다. 하루이틀을 함께 살았던 말보다는 일주일 열흘을 함께 살았던 말이 더 많았고, 평생의 반을 함께 살고 있는 말도 있다. 이해되지 않는 말도, 노여웠던 못된 말도 집으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더운물로 몸을 씻으며 살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도 없었으며 노여움도 사라졌다. 혹여 끝까지 이해되지 않거나 노여움이 일면 가슴에 구멍 하나 파서 묻고 소주 한 병 마시고 긴 잠을 자고 일어나 지리멸렬하게 생을 이어가다보면 괜찮아지곤 하였다.

— ‘청둥오리 백숙’ (117-118쪽)

결혼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을 덜 보여주는 것이라면 장례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을 다 보여주는 일이다. 덜 보여주었을 때는 잃었다는 상실감이 생긴다. 다 보여주었을 때는 승리감이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잃는 것을 보여주기가 두려웠던 것 같다. 결혼식은 해봤으니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장례식뿐일 것이다. 나를 다 보여주는 것도 내키지 않으니 결국 나를 보여주는 것이 평생 두렵거나 싫은 것이겠다. 그러므로 내 장례 때는 나와 알고 지냈던 사람 몇몇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좋겠다. 살아 있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188쪽)

오른편에 있다. 남쪽을 향해 서 있을 때 오른편에서 뒤로 10도 방향에 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5도 정도의 온기다. 한 번도 나보다 차가워진 적은 없다. 내가 빨리 걸으면 빨리 걸어오고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함께 서 있다. 왼편으로 누워 잠을 자면 등

뒤편에서 내색 없이 쉰다. 원치 않을 때 말을 걸지 않으며 먼저 나서는 일이 없고 키는 나보다 큰데 내 키에 맞춰 구부리고 있으니 불편할 것이다. 나는 나의 오른편 뒤 10도 방향을 ‘옆’이라고 부른다.

— ‘오른편 뒤 10도 방향’ (242쪽)

이제 이별해도 오늘부터 이별이야. 선언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이별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멀리 가는 것이다. 서로의 영혼은 가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이별이다.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 ‘서로를 위한 이별’ (273쪽)

바다는 강보다 슬프지 않고 당신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환희를 준다. 다시 바다에 왔다. 바닷가 집에서 여러 번 며칠씩 살아봤지만 바다 곁에서 사는 일은 만만치 않다. 바다가 나를 받아들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 바다가 무섭고 새벽에는 바다에게 잡아먹힐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매번 며칠밖에는 살지 못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함께 사는 일이 어렵듯 바닷가 집에서 사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과 같은 영역이 있다.

— ‘만나지 말고 여행할 것’ (285쪽)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하러 가지 않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참을 수 있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생은 무용하다. 사람이 사람의 생을 무용하게 해도 되는가. 그들은 눈을 감고 숨이 넘어가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겪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 ‘꼭 다시 태어나라’ (292-293쪽)

---

## ★ 지은이 용윤선

우연히, 커피 볶고 내리는 사람.

블로그 <http://poem9126.blog.me> 트위터 @poem9126

바리스타.

영등포 여성인력 개발센터, 강서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에서 커피를 가르친다.

## ★ 차례

당신은 괜찮습니까? \_ 파계재  
파란 대문 집 \_ 강의 오른쪽 기슭  
기댐 \_ 한강  
노처녀지요? \_ 마포  
그 집 앞에서 오래 \_ 연희동  
바닷가 집 \_ 협재  
애뜻한 농담 \_ 녹사평  
당신은 따뜻했습니다 \_ 불리스츠 힐  
시클라멘 화분 \_ 김포  
자주색 양말 \_ 유포  
기다려야 하니 \_ 회동길  
피아노 \_ 뎌진  
구운몽 \_ 광교  
오래된 사람 \_ 용산  
그리워지지 않는다 \_ 충주  
생일 선물 \_ 영등포  
커피에게 \_ 부여  
청둥오리 백숙 \_ 영월  
가도 가지 않아도 \_ 제주  
아보카도도 사랑해주세요 \_ 진주  
오후 두시 반의 기도 \_ 장안평  
너는 나였다 \_ 목동  
안티푸라민 연고 \_ 씨엠립  
조금 마음이 아프죠 \_ 남대문

잔술 \_ 외옹치 마을  
옆집 사람 \_ 15길  
안 죽어 \_ 안양천길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_ 논현  
13월 호텔 \_ 대구  
굿나잇 \_ 해란  
노르웨이 고등어 \_ 속초  
푸른 스카프 \_ 서울 북쪽 끝  
여기가 좋아요 \_ 양귀비 들판  
매주 일요일에 만납니다 \_ 남산  
살아간다 \_ 연중몽중  
섬기다 \_ 당신  
아마도 눈물 같겠지요 \_ 합정  
오른편 뒤 10도 방향 \_ 옆  
엄마, 내를 봐라 \_ 마산  
Goodbye, Amy! \_ 십분  
연락하지 마세요 \_ 대전  
서로를 위한 이별 \_ 군산  
지금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_ 낭트  
만나지 말고 여행할 것 \_ 바람아래  
꼭 다시 태어나라 \_ 바이온